

닛신보 텍스타일 - 섬유 사업 재구축하여 국제 경쟁력 회복

닛신보 텍스타일은 섬유 사업을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을 해외로 옮겨 코스트적인 국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이제까지 채산을 맞추기 어려웠던 상권까지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하면서 일본 내외는 모두 합하여 닛신보 텍스타일로서의 매출 규모를 확대할 생각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중국에 새로 합판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에 재구축하는데 있어 닛신보 텍스타일의 일본 국내 설비는 후지에다(藤枝) 공장의 방기(紡機)가 12,000 추(錘), 에어젯(air jet) 직기가 20대이며, 미아이(美合) 공장의 연속 표백 가공은 월산 25만 미터(m)가 된다. 이와 같이 줄인 규모는 “어쩔 수 없이 일본 국내가 아니면 생산할 수 없는 상품의 라인만을 남겼다.”고 말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 개발 거점으로서 현재의 연구 개발 스태프(staff)를 잘 유지함으로써, “방직 가공 전체에서 개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미아이 공장의 니트 가공과 중동으로 수출하기 위한 직물 가공은 현재의 일본 국내 설비를 유지할 수 있다. 유니폼(uniform) 소재의 직포·염색 등은 산지 기업에서 위탁 생산·가공하고 있는 것도 현상(現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셔츠지와 데님 생산은 대폭으로 해외로 옮기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자회사인 니카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 새로 직포 공장을 증설할 뿐만 아니라 방기를 일본으로부터 옮겨 설치함으로써 설비를 바꿔치기로 하였다. 염색 가공의 기스텍스 닛신보 인도네시아(G&N)도 3월 중에 신설 중인 액체 암모니아 가공과 수지 가공 라인(樹脂加工 line)이 완성되어 크게 증강한 것이 되었다. 출자 비율도 2009년 말에 89%(종래는 60%)로 끌어올려 이제까지보다도 닛신보 주도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데님은 당분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실을 닛신 데님에서 사염(絲染)과 제직(製織)을 하고 있는데 장차는 인도네시아에서 데님도 생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로프 염색(rope 染色) 등의 데님 가공의 합판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지 기업과 교섭 중이다.

중국에서도 셔츠감으로의 선염 가공으로 새로 합판 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이것도 현지 기업과 최종적으로 교섭하고 있으며 닛신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양으로 합판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의 합판은 재검토하고 있으며, 양가 집단(集團)과의 합판은 2009년 말로 해소하였으며 베켄 집단(集團)과의 합판은 계속 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구축 방안으로 닛신보 텍스타일은 “코스트적(cost的)으로는 해외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것이 되므로, 이제까지 재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권까지 파고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여, 규모가 큰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 어패럴의 製造 小賣業)나 GMS(general merchandise store :綜合大衆大型 super店)로부터의 수주도 적극적으로 획득해 나갈 생각이다.

또한 “이제까지보다도 더 해외 판매에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하여 글로벌(global)한 판매 체제 구축을 추진할 생각이다. 이미 인도에서는 발트만과의 제휴로 셔츠의 봉제와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새로 중국에서도 현지의 어패럴 유통과의 제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구체적인 교섭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셔츠 어패럴 자회사인 CHOYA에 관하여도 그룹이 하나가 된 영업 전략으로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닛신보 텍스타일은 “현재의 일본 국내 수요를 생각하면 축소 균형은 있을 수 없다. 어디까지나 해외 시장으로 뚫고 나가기 위한 사업 재구축이다.”고 하면서, 우선은 중국·인도·네시아·인도 시장을 개척하여 닛신보로서의 매출 규모를 확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